

뉴욕증시 - S&P 사상 최고치...다우 0.44% 상승 마감

1. 아베, 오늘 경제대책 지시 예정 ...추경용 국채발행 검토
 - * 추가 경기 부양책, 10조엔 초과 예상
 - * 건설 국채, 2012년 이후 4년 만에 발행해 자원 조달 계획
 - * 엔화, 추가 경기부양책에 2%대 급락 ...달러 강세
2. 국제유가, 캐나다 원유 생산 재개에 공급과잉 우려 ↑ ...WTI 1.43% ↓
3. 美-6월 CB고용추세지수 126.80 → 128.13
4.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기준금리 너무 낮다...금융 불안정 야기"
5. 연준, 강한 성장 확인 시까지 금리 인상 보류 <WSJ>
6. 유럽증시, 美 고용지표 호조(지난 8일 발표)·중앙은행 경기 부양 기대감에 사흘째 ↑
 - 영국, 오는 13일 새 총리 취임 소식 호재
 - ...EU 탈퇴파 안드레아 레드섬 경선 포기...테레사 메이 내무장관, 사실상 다음 총리 확정
7. 브렉시트 후 ECB 울여름 추가 부양·BOE 금리인하 <WSJ>

국제 증시			국제 상품		
DOW30	18226.93	(+0.44%)	WTI	44.76	(-1.43%)
NASDAQ	4988.64	(+0.64%)	COMEX금	1356.60	(-0.1%)
S&P500	2137.16	(+0.34%)	COMEX구리	2.1475	(+1.34%)
KOSPI	1988.54	(+1.30%)	주요국가 10y국채		
KOSDAQ	697.25	(+0.67%)	한국	1.380%	(-0.8bp)
국제 통화			미국	1.43%	(+7.2bp)
유로/달러	1.1056	(+0.0007)	영국	0.76%	(+2.4bp)
유로/엔	113.64	(+2.53)	독일	-0.17%	(+2.1bp)
달러/엔	102.77	(+2.28)	프랑스	0.12%	(+1.8bp)
달러/위안	6.6843	(-0.0010)	이탈리아	1.20%	(+0.9bp)
원/달러	1146.70	전일 1161.80	스페인	1.15%	(+0.9bp)
NDF	1151.80 / 1152.60원	5.00원 상승	그리스	7.66%	(-9.3bp)

금일 예정 지표			
국가	경제지표	Previous	Forecast
[EU 재무장관회의]			
	-5월 JOLT구인건수	5.788M	5.700M
미국	-6월 NFIB소기업낙관지수	93.8	94.1
	-5월 도매재고 (MoM)	0.6%	0.2%
독일	-6월 CPI (MoM)	0.1%	0.1%

국내 주요 금리			BOND SWAP SPREAD		
3y	1.216%	(+0.5bp)	3y	-4.3bp	(+0.3bp)
5y	1.246%	(-0.1bp)	5y	-8.1bp	(+0.1bp)
10y	1.386%	(-0.3bp)	10y	-16.6bp	(+0.3bp)
CD	1.360%	(-1.0bp)			

IRS OUTRIGHT			IRS SPREAD		
1Y	1.2300%	(0bp)	1*2Y	-4.75	(-0.25bp)
2Y	1.1825%	(-0.25bp)	2*3Y	-1.25	(0bp)
3Y	1.1700%	(-0.25bp)	2*5Y	-1.50	(+0.25bp)
5Y	1.1675%	(0bp)	3*5Y	-0.25	(+0.25bp)
7Y	1.1725%	(-0.50bp)	5*7Y	0.50	(-0.50bp)
10Y	1.2175%	(-0.50bp)	5*10Y	5.00	(-0.50bp)

1. 주요 뉴스

1-1. 유일호 "中 사드 대규모 경제보복 없겠지만 시나리오별 대비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02>

- "홍기택 부총재 사태, 국익에 손상...통화스와프 확대 검토"
- 유 부총리는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통화스와프(국가 간 통화 교환)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 GDP 성장률 오차와 관련,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항상 강조하고 있다"면서 "(성장률) 예측은 연구기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1-2. "中 외환보유액 증가, 위안화 절하 개입 때문일 가능성"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095>

- 텔레그래프지는 8일(현지시간) 자산 가격 변동 효과를 제외하면 인민은행은 6월 340억달러의 해외 채권을 순구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보도
- 중국이 부채 공급을 통한 성장 모델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통화 절하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

1-3. 버냉키, 일본은행 방문 목적...엔화약세 가속페달(상보)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238>

-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전 의장이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은행(BOJ) 본관을 떠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다우존스가 11일 보도
- 버냉키 전 의장이 일본은행을 방문했다는 소식과 아베 총리가 12일에 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이란 보도는 엔화 가치를 끌어내림
-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오후 3시 현재 0.98엔 오른 101.47엔을 기록

1-4. 브렉시트 후 ECB 올여름 추가 부양·BOE 금리인하<WSJ>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279>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브렉시트 결정이 유럽 지역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흔들어놨다며 ECB는 오는 9월 8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
- WSJ은 전문가들이 1조8천억 유로(2조 달러) 규모의 ECB 채권 매입 프로그램 확대를 기대
- WSJ은 그러나 카니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의 물가 인상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

2. 전일 장중 동향

*KTB: 시가 111.14 / 종가 111.13

*LKT: 시가 133.80 / 종가 133.75

1) 국내 채권 동향

국고채 금리는 강세 마감. 외인이 국채 5년물 입찰에서 많은 물량을 가져갔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음. 현재 시장금리는 이미 한차례 인하를 선반영한 수준이지만, 채권 시장 강세는 지속되는 모습. 다만, 뉴욕 증시는 11일 현지시간 S&P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1년 2개월만에 갈아치우며 미 국채 금리는 상승. 고용 서프라이즈 또한 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이미 국채 수익률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미 전문가들은 당분간 볼 마켓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국내 채권 시장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

2) IRS/CRS 동향

IRS 금리는 강보합 권에서 마감. 6개월-10년물까지는 -0.5bp에서 보합으로 큰 변동폭은 없었으나, 최근 10년 이상의 초장기물 커브가 재차 플랫, 커브 역시 전체적으로 플랫. 전체적으로 오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반발성 비드가 나오며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 3년 이하 단기물도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마켓 전체에서는 장기물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상황. 12, 15, 20년물 등의 장기물 거래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됨.

CRS 금리는 1.5-3.5bp 상승 마감. 한산한 거래량 속에 최근 에셋 스왑으로 인해 급락했던 금리 및 커브의 되돌림이 진행되는 모습. 이에 따라 금리 역전폭도 자연스레 줄어들음. 비드 강세 장이 하루동안 지속되었으나, 앞으로 에셋 및 부채 스왑 물량이 어느 레벨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는가에 따라 이미 매우 낮은 레벨로 인식되고 있는 CRS 금리의 방향성이 정해질 전망.